

LG화학, 여수 EPS 플랜트 “화재”

7월3일 오전 10시20분 EPS 설비에서 불 ... 하청 노동자 2명 중상

7월3일 오전 10시20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LG화학 화치공장의 EPS(Expanded Polystyrene) 설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김모(65)씨와 최모(35)씨 등 2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화치공장의 배수로를 확장하기 위해 김씨 등이 그라인더로 폐수처리장 바닥의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의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불꽃이 튀며 원료 이송펌프에서 새어나온 인화성이 강한 원료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및 LG화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7/03>